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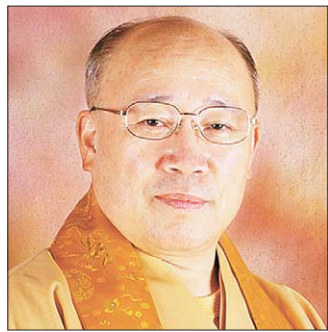
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 선출

진각종 4월 16일 정기총의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무진행"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에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가 선출됐다.

진각종 총의회(의장 성초)는 4월 16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재적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62회 정기총의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총의회에서는 통리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돼 1차 투표에서 21표를 얻은 혜정 정사가 신임 통리원장에 선출됐다. 선출된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前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6표를 득표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내에서 "종도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하며, 수행자로서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총의회 후 혜정 정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통리원장 소임을 수행하겠다"며 "진각종은 참회로부터 시작된 종단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무행정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사는



혜정 정사.

또 "진각성종 당시 교법과 수행상, 교화를 따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입문 후 유가·탑주·밀각심인당 등에서 교화했으며 제6·7대 총의회 의원 및 총인 사서실장,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주임교과, 진각대학교장, (재)진각종유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

법인 회담학원 이사장, 화홍어린이도서관장, 세계불교도우의회 진각본부 회장 겸 오계파지(buddhist pancasila samadana)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통리원장 선출 어떻게 하나

진각종 통리원장 소임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행계(行階) 4급 이상의 스승 모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총의회는 전임 통리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보자격을 갖춘 모든 스승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19표) 이상 득표자가 통리원장에 선출된다.

이는 교황 사명 후 전세계 추기경들의 도착을 기다린 후 교황 선거를 시작하는 바티칸 비

밀회의와 흡사하다. 교황 역시 투표 참수 추기경(최대 120명)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방식에서 발생 가능한 '금권선거' 등의 폐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선거운동이 이뤄질 폐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눔 희망 자비 상생" 한 목소리

각 종단 봉축법어 "부처님 말씀 따라 위기 이기자"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5월 2일)을 맞아 각 종단 종정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봉축법어 및 봉축사를 발표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4월 13일 봉축법어를 통해 "한량없는 자비의 대광명이 흥만한 부처님 오신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윤신 스님도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불자들은 스스로를 청정케 하고 연등을 밝혀 고통받는 중생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일깨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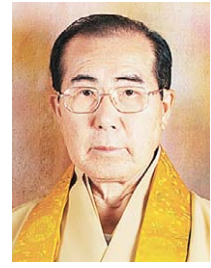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4월 14일 봉축법어를 통해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존엄한 것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진각종 총인 도훈 정사.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자각하고, 본래 빛나는 무량광·무량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사 스님도 "어떠한 차별과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살때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남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마땅히 평안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진각종 총인 도훈 정사는 4월 13일 봉축법어에서 "모든 불자들이 '나눔'의 기쁨과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자비행 실

천과 회사의 참 정신을 전하는 초발심을 내고,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공양(相互供養)하는 인류 공존과 공영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자신의 검소함으로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인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지종(통리원장 원송) 등의 각 종단 지도자들도 봉축법어를 발표해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다문화가족 위한 사찰로 변신

무원 스님 '명락사 5대 비전' 발표

천태종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천태종 총무부장·사진)가 다문화 사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4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문화 중심 사찰로의 도약'을 포함한 '명락사 5대 비전'을 발표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사찰 추진을 위해 매월 25일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5월 25일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명락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도 '다문화가족 초청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에는 명락사 주차장 특별 무대에서 설운도, 나미애, 북한예수단, 바라화 등이 출연하는 '명락사 4.8 예술제'가 개최된다. 2일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대법회(소원 풍선터우기) △바라화 공연 △꽃꽃

이 전시회 △가족사랑 홈·도예 체험 △부처님오신날 그림그리기 대회 △부모님과 함께 연주·컵등 만들기를 진행한다. 명락사 경내·외에서 '개성 영통사 복원과정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명락사는 현재 주변 대지 700여 평을 확보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락사 5대비전은 △최고 다문화 사찰 △삼업과 삼독 쉬고 삼보 아래 화합하는 사찰 △고통을 덜어주는 사찰 △남녀노소·다문화가족의 화합을 5분향 계승을 통해 이루는 사찰 △6바라화의 덕목을 깨닫게 하는 사찰 등이다. 김진성 기자



대상에 덴마크 이미림씨

천태종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열려

천태종(총무원장 정사)은 4월 11일 구인사 총무원 대회실에서 '제2회 천태종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을 봉행했다.

은상을 수상한 박호리씨 가족 등 신행수기 수상자와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정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행수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처님께 의지해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경험은 부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무부장 유정 스님은 심사평에서 "제2회 신행수기 공모 때 보다 문장력이나 주제

성 등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사실적 수기를 높게 평가했지만, 이후에는 신앙적 체험 부분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상을 수상한 박호리(서귀포)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품속에서 더욱 기도정진해 천태종풍 포교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대상-이미림(멘마크) △금상-김용건(부산) △은상-박호리(서귀포) △동상-안병도(진해) △장려상-손건식(시흥) 이해인(부산) 정수미(통영) 이수윤(부산) 권숙자(안산) 불자. 김진성 기자



총무원장 정사 스님(가운데 오른쪽)과 수상자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 기념비 세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5월 12~14일

한·일 불교문화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진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는 5월 12~14일 조계종 여주 신특사와 미란다호텔에서 '인류화합의 실성(實性)을 지향하다'를 주제로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이하 교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양국의 문화교류 30주년을 맞아 5월 13일 신특사에 '30주년 기념비'를 제막한다. 기념비 전면에는 '인류화합공생기원비'가 각인되며 후면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의 참회문이 새겨질 예정이다. 교류대회는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교류와 사회복지사업,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발전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한국에서 시작돼 양국에서 번갈아 진행된다.

5월 12일 서울 워커힌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 대표 180여 명과 일본 대표 120여 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13일 △세계평화기원법요식 △30주년기념비 제막식(이상 신특사) △학술세미나 △공동선언문 발표(이상 미란다호텔) 14일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여주 세종대왕릉 및 명성황후 기념관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대응보전 낙성

조동정종 영평사서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총무원장 정림, 이하 조동정종)은 4

월 12일 총본산 안성 영평사에서 대응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소속 스님들과 조계종 前 교무원장 암도 스님, 대한불교종단인 흥중연합회장 송산 스님, 이통회 안성시장, 김학문 안성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가산 스님을 증명법주로 삼존불 점안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前 교무원장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대응보전 낙성법회 영평사는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대가람을 이루게 됐다"며 "서로 베풀며 마음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도량,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육바라미를 행하자"고 말했다.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도 "오늘의 화합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영평사가 부처님 정법도량·교육중심 종찰 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 건강까지... 현대 과학이 창조한 신비의 연금술

알키미온(Alchemion)이란?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선인들의 지혜와 첨단 소재를 개발해 온 현대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해 낸 새로운 차원의 신물질입니다. 뛰어난 영능력자에 의해 여러 광물질을 수 년간의 숙성과 특수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천기와 지기를 연결시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 주도록 제조된 영적인 물질입니다.



알키미온 거북이

거북이는 예로부터 건강, 장수, 행운을 가져오는 영물로 여겼는데, 하늘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가정과 사업체에 영적건강과 행운을 가져옵니다.

알키미온이 필요한 분

- 정서 불안으로 안정이 필요한 분
- 손발이 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
- 정력강화와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
- 각종 질환 예방과 자연치유력을 원하시는 분
-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원하시는 분
- 직장과 사업체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



알키미온 파워카드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주는 등 자동 조절효과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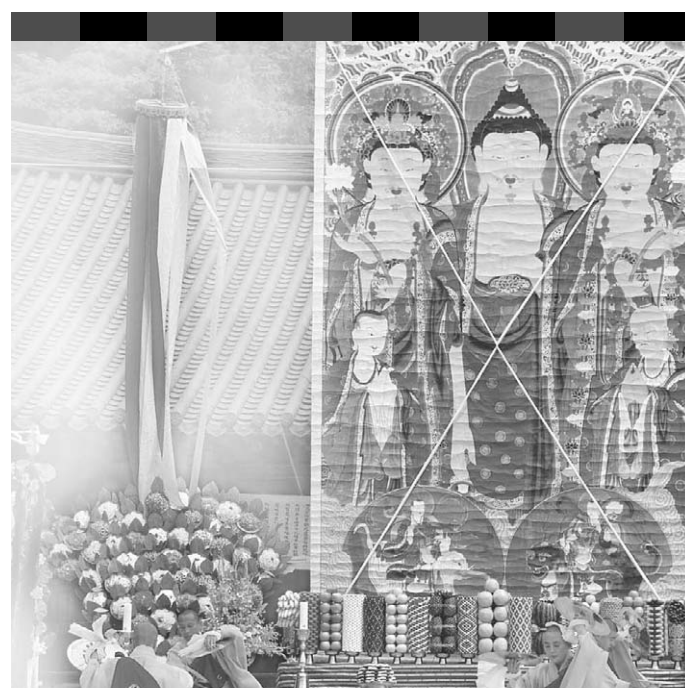
알키미온 여의주

여의주란 예로부터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뜻하며, 신의 완전한 건강 뿐 아니라 가정과 사업을 만나 행통으로 인도합니다.

(주)무단 합다운 건강을 전하는 기업 단체 상담 환영합니다. 상담 전화 021924-3500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음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2009(2553)년 부처님 오신날 극락사 법요식 및 경로잔치 일시: 5월 2일(음,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031)836-0477 / 010-4111-7523